[UCI]I804:24011-200000236187

2008年　2月
석사학위논문

올리버 크롬웰의 청교도 신앙과 그 정책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강　수　진

올리버 크롬웰의 청교도 신앙과 그 정책

Oliver Cromwell's Puritanism and his Policy

2008 年 2 月 25 日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강 수 진

올리버 크롬웰의 청교도 신앙과 그 정책

지도교수 전 지 용

이 논문을 석사학위 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07 年 10 月 日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강 수 진

강수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병 용　　인

위　원　전남대학교 교수　김 봉 중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전 지 용　　인

2007 年　11 月　　日

조선대학교　대학원

目　次

ABSTRACT

제 Ⅰ 장 序言 1

제 Ⅱ 장 청교도 운동의 역사성 4
제 *1* 절 청교도 운동의 기원 4
제 *2* 절 청교도 운동의 전개과정 6
제 *3* 절 국교도와 청교도의 대립 11
제 *4* 절 청교도의 분열 13

제 Ⅲ 장 *Oliver Cromwell*과 청교도 신앙 15
제 *1* 절 *Oliver Cromwell*의 청교도적 성장과정 15
제 *2* 절 *Oliver Cromwell*의 청교도 신앙 18
1. 섭리주의 18
2. 종교적 관용주의 22
3. 에라스투스주의 24

제 Ⅳ 장 *Cromwell*의 청교도 신앙과 영국혁명 27
제 *1* 절 의원겸직금지조례 27
제 *2* 절 프라이드의 숙청 30
제 *3* 절 *Charles* Ⅰ세 처형 32

제 V 장 *Cromwell*의 청교도 신앙과 호국경 정치 · 35
제 *1* 절 잔부의회 해산과 지명의회 ····· 35
제 *2* 절 소장제도와 도덕정치 ····· 37

제 VI 장 結語 ····· 40
참고문헌

ABSTRACT

Oliver Cromwell's Puritanism and his Policy

Kang Su-Jin
Advisor : Prof. Jeon Ji-Yong Ph. D.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thesis is aimed to examine Oliver Cromwell who pursued his policy based on Puritanism and a link between Puritanism and policy.

Cromwell was the figure inaugurated as Lord Protector during the age of Commonwealth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England history and exercised great influence over politics. In addition, he was influenced by Puritanism which progressed actively in England of 17th century, trusted firmly in Divine Providence and had faith that he was the instrument to achieve Divine Providence.

He aggressively attempted to apply his faith to policy and this endeavor was demonstrated as Self-Deniance Ordinance, support for Pride's purge and the execution of Charles 1, etc. After he was inaugurated as Lord Protector, it was demonstrated as the convocation of Barebones Parliament and Major-generals, etc.

Examining thoroughly the policy which Cromwell pursued, puritanical factors can be found such as Religious Toleration which Cromwell showed as a member of Independents, Providence he kept and Erastianism.

Despite this effort, Cromwell's policy progressed inconsistently due to compositive factors formed during english Revolution and the period of Commonwealth establishment. In addition, he could not evade criticism that he made use of religion in order to carry through his standpoint. Nevertheless, Cromwell's endeavor to apply faith to policy can be valued as a fresh and new attempt in history.

제 *1* 장 序 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Martin Lauther)가 비텐베르크에 95개조의 항의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종교개혁의 영향은 유럽대륙에 파급되어 영국[1)]에까지 미쳤다. 토마스 빌니(Thomas Bilney), 휴 라티머(Hugh Latimer), 마일즈 코버데일(Myles Coverdale), 매튜 파커(Matthew Parker), 윌리엄 딘테일(William Tyndale)등은 영국의 개신교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2)]

그러나 대륙의 종교개혁이 신앙적 동기에 의해 주도된 것과 달리 영국의 종교개혁은 정치적 동기에 의해 국왕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헨리 8세(Henry Ⅷ : 1491-1547)는 자신이 영국 교회의 수호자임을 선포하였으며 그 결과 영국 국교회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개신교도들에게 영국 국교회의 개혁은 불완전한 개혁으로 여겨졌고 엘리자베스 여왕(Elizabeth Ⅰ : 1533-1603) 시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청교도운동(Puritanism)이 시작되었다.

청교도운동은 16세기 영국에서 발생하여 미국으로 퍼져나간 운동[3)]으로 당시 봉건적 사회구조가 붕괴되고 중앙집권적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영국의 역사적·정치적인 시대 상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교도운동은 16, 17세기 영국의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 : 1599-1658)이 활동했던 시기와 청교도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올리버 크롬웰은 영국혁명에서 의회파를 승리로 이끈 군사적·정치적 지도자이자 영국 최초의 공화정 시기에 호국경(Lord Protector)이 된 인물이었다. 그는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puritan)로서 자신이 신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신의 도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였으며 모든 일에 신에 대한 의무를 앞세웠다.[4)]

---

1) 본 논문에서 '영국'은 1707년 영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이 되기 이전의 잉글랜드(England)를 의미한다.
2) Houghton, Sidney Maurice, 『기독교 교회사』, (나침반사, 1988), p. 195.
3) 고길운,「영국 청교도 운동의 기원과 발전」, 한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20.
4) Sir. C. Firth, *Oliver Cromwell and the Rule of the Puritans in England*, (London: 1900), p. 468.

그리고 크롬웰은 도덕정치를 통해 자기가 가진 신앙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고자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앙이 한 개인, 나아가서는 국가에 어떠한 모습으로 투영되었는지를 살펴보기에 크롬웰이 가장 적당한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국내연구는 크롬웰에 대한 연구보다는 영국혁명에 대한 용어 문제[5]와 영국혁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6] 그리고 크롬웰에 대한 연구도 종교적인 관점 보다는 젠트리(Gentry)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7] 최근에는 수정주의 해석의 영향으로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연구[8]가 이루어지 있지만 여전히 그의 청교도 신앙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9]

---

5) 1970년대 이전까지 '영국 혁명'이라고 알려져 온 개념이 17세기 중반에 이르러 '혁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흔들리게 되었다. '혁명'과 '내전'이라는 용어는 각각 전통적인 휘그적 해석과 수정주의 해석을 대표하고 있다, 휘그계열의 학자들은 주로 '영국 혁명'이라는 용어를 써 왔고, 수정주의 학자들은 '영국 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김민제,『영국혁명의 꿈과 현실』,(역민사, 1998), pp. 29-31.

6) 영국혁명의 해석에 대한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민제,『영국혁명의 꿈과 현실』, (역민사, 1998).
오주환,『革命・思想・社會變動』,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1).
Christopher Hill, *The English Revolution 1640*, 홍치모・안주봉 공역,『영국혁명 1640』, (새누리, 1998).
나종일,「영국혁명에 대한 한 시각」,『서양사론』, 33집, (1989).
오주환,「英國革命史 硏究의 實相」,『경북사학』, 5집, (1982).

7) 나종일,『영국근대사연구』, (서울대출판부, 1981).
홍사중,『영구혁명사상사』, (전예원, 1982).
나종일,「지방 Gentry와 영국혁명」,『역사학보』, 40집, (1968).

8) 임희완,『영국혁명의 수평파운동』, (민음사, 1988).
임희완,『淸敎徒革命의 宗敎的 急進思想』, (집문당, 1985).
김성남,「英國革命期에 있어서 水平派運動의 性格」,『사총』, 27집, (1983).
김소영,「英國 市民革命期의 水平派에 關한 一考察」,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임희완,「영국혁명기의 종교적 급진사상의 역할」,『역사학보』, 138집, (1993).
조경래,「Puritan Revolution에 있어서의 독립파의 정권장악에 관한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홍정모,「英國革命과 宗敎的 急進主義」,『총신대학교 논문집』, 11집, (1982).

9) 최근 영국 혁명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다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으나 과거에 사용되었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르다. 현재 이 용어가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요즈음에 종교적인 원인이 영국혁명의 발발 배경으로써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거의 전적으로 수정주의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수정주의 학자들이 '퓨리턴(puritan)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들의 경건한 종교심 때문이 아니라 퓨리턴의 사회적인 유대 관계가 혁명에서 편가름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최초의 단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종교는 이런 맥락에서 수정주의 학자들의 관심을

따라서 본고에서는 크롬웰의 청교도 신앙과 그 정책의 연관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 영국에서 청교도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기원과 전개과정[10]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과 영국 국교회는 모두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한 이후 양자는 극심하게 대립하게 되었고 결국 영국혁명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왜 대립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영국 혁명이 진행되면서 청교도 내부에서 야기된 분열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영국 청교도 운동의 특성은 16, 17세기를 살았던 크롬웰의 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칼빈주의의 영향으로 도덕정치를 추구하고, 종교를 정치적인 사건에 개입시킨 점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크롬웰이 추진한 정책은 무엇이며, 그의 청교도 신앙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연관성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집중시켰다. 또한 영국 혁명이 영국·스코틀랜드·아일랜드에서 각각 다른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관점에서 수정주의 학자들은 종교에 중요성을 두게 되었다. 김민제,『영국혁명의 꿈과 현실』,(역민사, 1998), pp. 31-32.

10) 영국 puritanism의 기원과 발전을 작성하기 위해 참고한 단행본과 논문은 다음과 같다.
Houghton, Sidney Naurice,『기독교 교회사』,정중은 역, (나침반사, 1998).
알렌 카튼,『청교도 정신: 17세기 미국 청교도들의 신앙과 생활』,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제임스 파커,『청교도 사상』, 박영호 역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박영호,『청교도 실천신학』,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고길운,「영국 청교도운동의 기원과 발전」, 한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익진,「청교도 운동과 청교도주의」,『교수논문집』, 2집, (그리스도신학대학교, 2003).
양승환,「영국 청교도 운동과 독일 경건주의 비교」,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희근,「청교도 예배에 관한 연구」, 칼빈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제 Ⅱ 장 청교도 운동의 역사성

제 *1* 절 청교도 운동의 기원과 전개과정

청교도 운동(Puritanism)의 기원과 정의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청교도 운동은 말 그대로 매우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운동(movement)'이라는 말로 표현되기에 적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으며 다양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어떤 정연한 이론도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는 없다.[11] 또한 청교도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대체로 16C 중반을 기점으로 하지만 일부 영미계통의 학자들은 이 운동의 시작을 중세 개혁자들에게 소급시키며 이 운동을 전체 교회 역사에 있어서의 경건 운동 가운데 하나로 파악하고자 한다.[12]

청교도(Puritan)라는 말은 "puritas(purity)"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하려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16세기 영국성공회의 주교들이 성공회의 기도서와 예배의식, 예복 등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나타났고 청교도라는 말은 이들 주교들의 요구에 반대한 사람들에 대한 조소적 명칭이었다. 당시 캔터베리 대주교인 파커는 그의 서한에서 이 반대자들이 속한 진영을 겨냥하여 'puritan(깨끗한 척 하려는 사람)', 'precisian(꼬치꼬치 캐려는 사람)', 'presbyterian(장로파 사람)' 이라고 표현하였다.

청교도 운동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앞서 언급한대로 다양하다. 첫째, 1215년 영국의 존(John) 왕이 프랑스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한 영주들이 "대표 없이는 세금도 없다"는 주장으로 왕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선언한 대헌장(Magna Carta)을 마련한 때부터이며, 폭군에 대한 정치적인 저항운동을 청교도운동의 기원으로 보는 견해이다. 둘째, 로마 가톨릭교회의 부정과 부패로부터 영국교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던 14세기에 종교개혁자 위클리프의 개혁운동을 청교도운동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셋째, 메리 여왕이 사망(1558)한 후 대륙으로 피신하였던 800명의 개혁가들이 귀국하였고, 그들은 대륙교

---

11) Edward Hindson,『청교도 신학』, 박영호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p. 7.
12) 양승환,「영국 청교도 운동과 독일 경건주의 비교」,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 3.

회 특히 칼빈의 제네바 교회를 모델로 하여 교회와 사회 전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청교도운동의 기원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들은 유럽 대륙에 망명해 있는 동안 라인란트와 취리히 스트라스부르크 등지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의 훈련을 받았으며 특히 칼빈의 종교적 이념에 크게 심취된 사람들도 있었다. 망명 생활을 하던 이들이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은 너무도 화려하게 변한 모국 교회당과 예배 의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 교회는 단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으며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민 외관은 허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영국 국교회에 남아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무지와 미신적인 잔재를 제거하고, 성서적인 교리, 예배, 교회 정치제도를 영국 안에 정착시키며, 경건을 회복하여 성서가 다스리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 건설을 원하였다.[13]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영국의 청교도 운동은 그 전개과정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메리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을 중심으로 하는 튜터(Tudor)왕조 시대의 청교도 운동, 엘리자베스가 자녀 없이 죽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영국 왕실을 계승하면서 시작된 스튜어트(Stuart)왕조 시대의 청교도 운동, 그리고 크롬웰의 공화정과 왕정복고 이후의 청교도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14] 본고에서는 헨리 8세부터 크롬웰의 공화정 시기까지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

13) 김익진,「청교도 운동과 청교도주의」,『교수논문집』, 2집, (그리스도신학대학교, 2003), pp. 14-15.
14) 고길운,「영국청교도운동의 기원과 발전」, 한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24.

제 2 절 청교도 운동의 전개과정

튜터 왕조 시대의 청교도 운동은 청교도 운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헨리 8세(Henry Ⅷ : 재위 1509-1547)는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개인적인 사생활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는 1534년 종교개혁 의회(Reformation Parliament)에서 영국 국교회(The Anglican Church)를 세우고 왕을 영국교회의 지상에서의 최고의 머리됨을 주장하는「수장령」(Act of Supremacy)을 발표하였다.

1547년에 헨리 8세가 죽자 병약한 아들 에드워드 6세(Edward Ⅵ : 재위 1547-1553)가 왕좌에 오르게 되었다. 이때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는 왕께 충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대륙의 개신교와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인도하였으며 어린 에드워드 6세는 개신교도가 되었다. 에드워드 6세의 짧은 통치 동안에 성직자들의 결혼이 허가되고 교회에서 우상이 제거되었으며, 공동기도서가 인쇄되었고 42개조(the Forty-Two Articles)로 알려진 개신교의 교리 성명서가 작성되었다. 분명 개신교가 장악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553년 16세의 어린 나이로 에드워드 6세가 죽자 그의 이복 자매인, 열성적 가톨릭 신자이며 캐서린의 딸인 메리(Mary : 재위 1553-1558)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녀는 신교도를 순교시킴으로 '피의 메리'(bloody Mary)로 불렸는데 영국을 로마와 결합시키는 것이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녀는 헨리와 에드워드 시대에 공포된 종교에 관한 법령들을 폐지하였고 교황청과의 재결합을 선언하였다.

1558년 메리가 사망하자 앤 불린의 딸인 엘리자베스(Elizabeth : 재위 1558-1603)가 왕위에 올랐다. 엘리자베스가 즉위한 후 제네바·취리히·프랑크푸르트로 피난갔던 개신교도 약 800명이 귀국하였다.

그녀는 가톨릭 신자인 백성들의 감정을 해치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자신을 지지하는 개혁자들을 완전히 소외시킬 마음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즉위한 후 로마 가톨릭과 제네바의 칼빈주의 사이의 '중도노선 정책'(via media policy)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영국 성공회(Church of England)의 원형이다. 엘리자베스는 로마 가톨릭의 정치적·종교적 교리를 거부하는 한편 국가는 물론 교회의 완전한 조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교회 내

청교도 분파의 극단론도 배격하였다.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가 로마 가톨릭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개혁교회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청교도들은 국교회에 남아 있는 로마 가톨릭의 잔재들을 깨끗이 없애기로 마음먹었고[15] 이때부터 청교도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튜터 왕조의 왕은 "의회 안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중앙집권적 국민국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의회정치의 존중이라는 영국의 정치적 특성은 의회 구성원들의 독자성에 의해 왕과 의회의 관계를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튜터 왕조의 말기를 지나 스튜어트 왕조에 이르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16]

엘리자베스 여왕이 1603년에 직계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사망하자 스코틀랜드 국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James I :재위 1603-1625) 왕위에 즉위하였다.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 가톨릭과 장로교, 국교도 들은 서로 다른 기대감으로 왕에게 기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왕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복합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17] 가톨릭교도들은 왕의 부모들이 가톨릭교도라는 점을, 장로교 청교도들은 그가 장로교의 땅에서 자라났다는 점을, 그리고 국교도들은 스코틀랜드 목사들이 왕을 모독했다는 점을 중시했다. 그 중에서도 청교도들의 기대가 가장 컸는데 그 이유는 왕이 자라난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John Knox)의 영향으로 이미 장로교가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왕이 정통 개신교주의(Orthdox Protestantism)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보다 진보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작용하였던 것이다.[18]

서로 상충되는 기대감 가운데 엘리자베스가 주도했던 화해의 노력은 깨어졌으며 보다 발전된 개혁을 주장하던 청교도들과 로마 가톨릭으로의 환원을 주장하는 신도들 사이의 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때 전국에 흩어져 있던 1000여명의 청교도들은 '천인의 청원(Millenary Petition)'이라 불리는 교회 개혁을 위한 청원을 왕에

15) 박영호,『청교도 실천신학』,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pp. 78-79.
16) 김익진,「청교도주의」, p. 9.
17) 양승환,「독일 경건주의 비교」, p. 10.
18) 고길운,「기원과 발전」, p. 28.

게 드렸다. 그 결과, 햄튼 코트에서 어전 회의가 열렸다.[19] 주교들과 청교도들이 여러 문제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고 왕은 의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회의 도중 청교도들 중의 한 사람이 우연히 '대회'(Synod)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말은 장로교의 색채를 풍기는 말이었다. '대회' 라는 용어는 왕을 노하게 만들었으며 화가 난 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 당신들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지향한다면 군주를 마귀이자 하나님으로 간주하는 것이오. 감독(주교)이 없이는 왕도 없소.[20]

이 말은 감독(주교)들이 장로로 대치된다면 왕 자신은 곧 왕위에서 쫓겨날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회의는 곧 결렬되었으며 얼마 있지 않아 300명의 청교도들이 주교들에 의해 영국 국교회 내에서 직책을 박탈당하였다.[21]

제임스 1세는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중간적인 입장을 따르고자 하였다. 그는 가톨릭과 급진적인 개신교도들 모두 박해하였는데 먼저 그는 가톨릭 신자들에 대해서 국왕보다 교황에게 더 충성한다는 이유로 억압하였다. 이에 1605년 가톨릭 신자들은 왕을 제거하고자 의회 지하에 폭탄을 설치하여 왕이 의회를 진행하는 도중 청교도들이 대다수인 의회 의원들과 함께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건파우더 음모'(Gunpowder Plot)는 결국 사전에 발각되어 무의로 끝나게 되었다. 급진적인 청교도들에 대해서는 1606년에 보다 노골적인 反 청교도적인 교회법들이 추진되어 그의 통치 기간 중에는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22]

개혁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 안에서 개혁할 것인가 아니면 영국을 떠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고난과 종교의 자유를 찾아 약 120여명의 청교도들은 신대륙으로의 도피를 계획하여 메이플라워(The Mayflower)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하였다.[23]

---

19) 양승환,「독일 경건주의 비교」, p. 10.
20) Houghton Sidney Maurice,『기독교 교회사』, 정중은 역, (나침반사, 1998), p. 262.
21) 같은 책, p. 262.
22) 양승환,「독일 경건주의 비교」, p. 11.
23) 고길운,「기원과 발전」, p. 29.

제임스 1세의 통치 기간에는 몇 번의 의회가 소집되었다. 그리고 그는 의회를 소집할 때마다 의회의 힘이 증대되고 있음을 느꼈다. 처음에 그는 의회의 소집 없이 통치하려 애썼지만 새로운 세금 부과 문제로 인해 1614년에 의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통솔력에 어려움을 느껴 곧 해산하게 되는데 때마침 발발한 30년 전쟁으로 인해 1621년 다시 의회를 소집하였다. 의회는 세금 문제는 승인하지만 결혼 문제를 강력히 반대하게 되는데 이에 왕은 의회를 해산하고 청교도 지도자들을 체포하였다.[24]

제임스 1세를 이어받은 찰스 1세(Charles 1: 재위 1625-1649)는 왕권신수설의 열렬한 신봉자였다. 찰스 1세는 1629년에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통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1년 동안(1629-1640) 그렇게 하였다.[25] 이러한 행동은 개신교 세력이 주도적인 가운데 청교도들에게 점점 동조해가던 의회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26]

한편, 청교도들은 찰스 1세가 프랑스의 앙리에타 마리아(Henrietta Maria) 공주와 결혼하자 왕의 본심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 결혼 때문에 영국내의 가톨릭에게 상당한 양보를 해야 했으며 또한 새로운 왕비와 수행원들은 계속 로마 가톨릭적인 종교 의식을 거행할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청교도들에게 우상 숭배가 재현된 것으로 보였으며 왕실 내에 배교자가 생겼다고까지 여겼다.[27]

찰스 1세는 국교회의 지도자인 윌리엄 로드(William Laud)와 두터운 친분을 가졌다. 그리고 1628년 그를 가장 강력한 청교도 중심지인 런던의 주교로 임명하였으며 1633년에는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하였다. 대주교가 된 그는 청교도들의 설교를 금하고 고문하고 처형하였다. 그는 의식과 의복, 예배를 통일시키려고 하였으며 청교도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찰스 1세는 윌리엄 로드에게 스코틀랜드에서도 주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윌리엄 로드는 스코틀랜드에 성공회의 예배 의식을 강요하였고 이 일로 전

---

24) 같은 논문, pp. 29-30.
25) Houghton Sidney Maurice,『교회사』, pp. 256-271.
26) 임희완,『영국혁명의 수평파운동』, (민음사, 1988), pp. 27-40
27) 고길운,「기원과 발전」, p. 30.

스코틀랜드가 윌리엄 로드에 반대하는 불길로 뒤덮였다. 이런 충돌은 「주교전쟁」(The Bishops Wars: 1639-1640)으로 치닫게 되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왕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두 번의 의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두 번째 소집된 의회가 영국 역사상 유명한 '장기 의회(Long Parliament: 1640-1660)'이다. 이 의회를 계기로 왕의 군대와 의회군이 대결하게 되었고 급기야 영국혁명이 발생하였다. 바로 이 전투에서 올리버 크롬웰이 주도한 의회군이 승리하게 됨으로 청교도적 개혁의 실현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28]

요컨대, 청교도 운동은 영국 국교회의 가톨릭적 잔재, 그리고 국교회의 국가와의 야합에 항거하여 성경과 영감에 찬 설교를 강조하며, 대륙의 16세기의 종교개혁에로 돌아가려는 영국 개신교의 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교도 운동은 본질적으로 교회 개혁과 목회 갱신과 복음전도를 위한 운동이었으며, 청교도의 목표는 영국의 개혁이 시작한 바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곧 영국 국교회 예배의 수정을 완성하고, 영국 국교회 교구에 효과적인 기율을 도입하고, 정치와 가정과 사회경제 체계에 정의를 수립하고, 모든 영국인들을 살아있는 복음적 신앙으로 개종시키는 것이었다. 복음을 전도하고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모든 예술, 과학, 기술들의 성경화를 통해 영국은 성도들의 땅, 집합적 경건의 귀감과 모범이 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세계의 축복의 수단이 되는 것이었다.[29]

---

28) 양승환,「독일 경건주의 비교」, p. 12.
29) 고길운,「기원과 발전」, pp. 21-23.

제 3 절 국교도와 청교도의 대립

청교도 운동이 외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청교도들이 예복(vestments) 논쟁에 개입하면서부터이다. 예복이란 성직자들이 입도록 교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영국 국교회에 남아있는 가톨릭적 잔재 중 하나였다. 청교도들에게 성직자의 예복은 "적그리스도의 옷"으로, 또한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예복의 착용은 종교개혁의 정신인 만인 제사장 직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30]

이외에도 세례 받을 때 성호를 긋는 일,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는 일, 그리고 결혼식에서 반지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세례 시 성호를 긋는 것은 미신적인 행위라고 여겨 반대하였고, 성찬식 때 무릎을 꿇는 것은 성찬식 자체가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로마 교회의 화체설이나 루터의 공제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반대하였다. 또 결혼식에서 반지 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혼인이 성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31]

청교도들과 여왕 사이에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또 다른 문제는 예언(prophesying) 모임에 관한 것이었다. 예언 모임이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 전파를 위하여 모이는 비공식적인 종교적 회합을 지칭해서 쓰는 말이다. 이것은 제네바 교회의 것을 모방한 것으로 성경구절과 신앙체험 등이 토론되었으며 종종 문제의 교리들도 비판되었다. 이것은 자연히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많았으며[32] 여왕에게 있어서 그러한 모임은 교회의 개혁을 더욱더 확산시키려는 시도로 보였다. 그리하여 1577년 여왕은 캔터베리의 대주교 에드먼드 그린달(Edmund Grindal)을 시켜서 이러한 모임들을 탄압하고 그 모임을 주최하는 자들을 체포하여 처벌하도록 조치하였다.

국교파와 청교도의 갈등은 성직자 문제로 더욱 심화되었다. 엘리자베스의 통치 기

---

30) 이승재,「청교도 교회론에 관한 연구-16,17세기 영국 청교도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19.

31) 같은 논문, p. 19.

32) 임희완,「영국혁명기 캘빈주의의 수용과정」,『인문과학논총』, 31집,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p. 174.

간 중 대표적인 청교도 지도자로 손꼽혔던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는 성직자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대주교(archbishop)와 부주교(archdeacon)의 이름과 기능이 폐지되어야 하고 둘째, 신약에 기록된 감독(bishop)과 집사(deacon)와 같은 합법적인 목회자들의 직책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독은 말씀과 기도와 같은 영적인 기능을 맡고 집사는 빈민구제의 일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각 교회의 정치는 주교나 감사관(chancellors), 대주교가 아니라 해당 목사(minister)나 장로회(presbytery, board of elders)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각 목사는 그 해당 회중들에게 넘겨져야 하며 더 이상 떠돌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어떤 사람도 간청에 의해서 목사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사직은 어떤 개인적인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선거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목사들은 누구나 평등하다며 주교의 목사전횡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주장은 왕실과 상층부의 완강한 저지를 받았다. 그리고 휫트기프트(Whitgift)는 '모든 집단마다 나머지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을 택하여 그 집단의 지휘를 맡겨야 한다'는 칼빈의 주장을 내세워 목사들의 평등을 거부하였다.[33]

그러나 양자 간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국교도와 청교도는 모두 칼빈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대립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원인은 메리 여왕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앞서 제 1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리 여왕 시기에 많은 개신교들이 대륙으로 피난하였다. 이 가운데 영국의 칼빈 사상에 영향을 끼친 집단이 프랑크포르트의 영국회중집단이었다. 윌리엄 휫팅검(William Whittingham)의 지도 아래 모인 이들은 에드워드 6세의 제2기도서를 검토하던 중 많은 부분에서 가톨릭적인 것을 찾아냈고 그것을 제거하였다. 동시에 칼빈주의적 의식과 예배를 준수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리차드 콕스(Richard Cox)의 기치 아래 모인 새로운 회중 집단에 의해 영국의 공식적인 예배 의식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비난받게 되었다. 이러한 양측의 논쟁은 국교도와 청교도간의 대립의 원인이 되었으며 엘리자베스가 즉위한 이후 더욱 본격화 되었던 것이다.[34]

---

33) 같은 논문, pp. 171-173.
34) 같은 논문, pp. 164-165.

제 4 절 청교도의 분열

혁명이 발생하면 혁명의 주동세력 간에는 대립과 마찰이 생기고 그것은 온건파와 과격파로 표현된다. 특히, 영국혁명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혁명이 진행된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작용이 혁명세력내부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35]

영국혁명에서 대개 1645-1646년까지는 정치적 우파가 장로파였으며 좌파는 온건 독립파였다. 1647-1649년까지의 정치적 우파는 온건 독립파였으며 그 좌파는 수평파였다.[36]

이처럼 청교도가 분열하기 시작한 것은 영국혁명이 의회파의 승리로 끝나고 국교회 폐지를 결정한 뒤, 어떠한 교회제도를 만들 것인가를 두고 의회파 내부가 장로파(Presbyterians)와 독립파(Independents)로 분열하면서 부터이다. 이에 1643년 7월 새로운 교회제도에 대한 구상을 위해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종교회의가 열렸다. 의회 내의 장로파와 종교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목사들은 장로제 교회를 세우고자 주장하였다.[37] 그들이 주장한 장로제 교회는 실질적으로 '대장로'에 의한 귀족적인 지배로서 동시대인들은 "장로에 의한 귀족제적인 것으로, 결코 감독에 의한 군주제적인 것이나, 인민에 의한 민주제적인 것이 아니라"라고 하였다.[38]

한편, 독립파는 국가로부터 분리된 교회를 주장하였고 회중은 완전히 독립적이며 신도들은 서약의 기반 위에 형성되고, 목사나 장로, 집사 등은 완전한 평등은 아니지만 대단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교회로부터 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9]

장로파와 독립파의 대립은 종교적 대립인 동시에 사회·경제적 대립이기도 하였다. 장로파는 주로 런던의 상층시민으로 근대적 상업자본가와 신흥지주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왕당파보다는 민주적이었지만 기성상층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40]

---

35) 한용희,「淸敎徒革命의 黨派的 分析」,『논문집』, 2집, (숙명여자대학교 경제연구소, 1972), p. 163.
36) 임희완,「영국 수평당의 성립배경」,『학술지』, 33집, (건국대학교, 1989), p. 43.
37) 최진한,「Puritan 革命期에 있어서의 分派性」,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p. 27.
38) 같은 논문, p. 28.
39) 같은 논문, p. 29.
40) 한용희,「黨派的 分析」, p. 169.

독립파는 사회·경제적으로는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선거제도에 의해서 대표자를 의회에 보낼 수 없는 농촌 신흥사회층이었다. 이들은 농업자본가, 독립자영농민, 농촌출신의 독립상인, 중소지주, 중산상공업자들이었다.[41]

그리고 장로파와 독립파의 대립은 앞으로 혁명을 더 진행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였다.[42] 장로파는 절대군주정에 반대하며 의회의 자유를 외쳤지만 그것이 왕권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로파는 이미 부를 축적한 기성상층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는 절대왕정의 테두리 안에서 형성되어 진 것이었다. 따라서 장로파는 재정, 군사, 종교상의 통치권을 의회가 장악하고 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하였으며[43] 계속적으로 국왕과의 타협을 모색하였다.

장로파는 2차 혁명이 종결된 이후에도 국왕과의 타협을 계속하였고 독립파는 장로파를 제거하는 일을 당면 목표로 삼았다. 결국 독립파는 1648년에 프라이드의 숙청을 통해 의회에서 장로파 의원을 추방하였다. 나아가 1649년 화이트홀에서 국왕을 반역 혐의로 사형시키고, 동년 5월 19일에 공화제로 선언하였다.[44]

앞서 언급한 대로 독립파는 온건파와 급진파로 구분할 수 있다. 온건파를 독립파라고 하며 급진파를 수평파(Levellers)와 디거스(Diggers)[45]라고 한다. 수평파는 1647년 인민협정을 발표하여 독립파 군간부와 대립하였고 이를 계기로 무력으로 탄압 당하였다. 그러나 1648년 제2차 혁명이 발생하자 일시적으로 제휴하였다. 혁명이 종결된 후 독립파가 보수화되는 것에 반대하고 왕정의 폐지를 명확히 주장하였고 공화정 창설에 크게 기여하였다. 당시 수평파의 대표적인 지도자는 존 릴번(John Lilburne)으로 주로 소책자나 팜플릿을 통해 그들의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1649년 봄에 아일랜드 파병에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켜 탄압 당하였으며 그 후로 쇠퇴하였다.

---

41) 같은 논문, pp. 169-170.
42) 임호수,「청교도 혁명의 성격에 관한 연구」,『논문집』, 10집, (충남대학교, 1971), p. 60.
43) 최진한,「分派性」, pp. 31-33.
44) 임호수,「성격에 관한 연구」, pp. 62-63.
45) 디거스(Diggers)는 수평파의 좌익으로 진정한 수평파라고 불린다. 디거스의 지도자는 제라드 윈스탄리(Gerrard Winstanley)로 토지를 잃은 소농을 배경으로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으로 이 운동은 실패하고 해산되었다. 그 후 켄트·버킹엄셔 등의 여러 주로 파급되었으나 발전하지 못하였다.

제 Ⅲ 장 *Oliver Cromwell*과 청교도 신앙

제 *1* 절 *Oliver Cromwell*의 청교도적 성장과정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 : 1599-1658)은 1599년 4월 25일 헌팅턴(Huntingdon)의 젠트리 집안에서 로버트 크롬웰과 엘리자베스 스튜어드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모든 사람은 신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선행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칼빈주의(Calvinism)를 굳게 믿었다. 그의 조부 헨리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서 기사로 서임되었고, 네 번이나 헌팅턴의 장관(sheriff)으로 임명되었으며, 그의 부와 관대함으로 말미암아 황금기사(Golden Knight)로 지칭되었다.

크롬웰의 아버지인 로버트는 헨리의 작은 아들로서 한 해 수입이 300파운드 정도인 헌팅턴의 작은 영지를 이어받았을 뿐이다.[46] 그러나 그 역시 주의 치안판사(Justice of Peace), 그리고 헌팅턴을 대표한 의원으로 선출될 정도의 지방 유지였다.[47]

크롬웰은 헌팅턴의 문법학교(Grammar School)에서 수학한 후, 1616년 4월 23일 캠브리지의 시드니 서섹스 대학(Sidney Sussex College)에 입학하였다. 문법학교의 교장이었던 토마스 비어드(Thomas Beard)는 로버트의 가까운 친구로, 그는 교황을 反 그리스도로 규정하였으며, 사람의 죄가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은 없다고 가르치고, 또 성공과 실패는 신의 총애와 냉대의 표시라고 믿고 있었던 청교도였다. 그리고 신이 직접 역사에 개입하며, 신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그들이 전에는 아무리 약하고 무력했더라도 신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48] 시드니 서섹스 대학의 교사였던 사무엘 워드(Samuel Ward)는 유식하면서도 병적일 만큼 성실한 성직자로서 엄격한 규율을 강요하는 사람이었다.[49] 특히 워드는 당시 명성이 높던 신학자였다. 그는 동시에 박식한 칼빈주의자(Calvinist)로서, 금욕적이

---

46) Samuel Harden Church, *Oliver Cromwell a history*, 4 vols., (London: 1984), p. 3.
47) 나종일,「Puritanism과 Oliver Cromwell」,『역사학보』, 67집, (1975), p. 71.
48) Christopher Hill, *The English Revolution 1640*, 홍치모 · 안주봉 공역,『영국혁명1640』(새누리, 1998), p. 120.
49) 나종일,「Oliver Cromwell」, p. 72.

고 도덕적인 행위에 있어서 그 실천적인 규범을 보였다.[50]

크롬웰이 시드니 석세스 대학에 입학한 다음 해인, 1617년에 그의 아버지가 죽자, 그는 헌팅턴으로 돌아와 가업을 돌보았다. 그러나 로버트는 그의 가산의 3분의 2를 그의 딸들을 위하여 그의 처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크롬웰에게 남겨진 것은 별것이 아니었다. 헌팅턴에 잠깐 머문 후 크롬웰은 모든 시골 젠틀맨이 갖추고 있어야 할 약간의 법률지식을 얻기 위하여 런던의 링컨 법학원(Lincoln's Inn)에 들어갔다. 앞으로 주의 치안판사, 그리고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법(Common Law)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빼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51]

1620년 8월 22일, 런던시의 피복상인 제임스 부처(Sir. James Bourchier)의 딸 엘리자베스와 결혼한 후, 크롬웰은 다시 헌팅턴에 돌아와 경작농업에 종사하였다. 엘리자베스는 상당한 지참금을 가져왔으나, 이것으로도 조혼과 다산에 의하여 불어난 가족 모두에게 넉넉한 생활을 마련해주기는 어려웠다. 중세적인 지조제에 입각하고 있었던 곡물 경작은 겨우 수지를 맞추는 것 이상 크게 기대할만한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다 헨리의 가산의 주요부분을 상속한 백부까지도 그의 푸짐한 씀씀이 때문에 빚을 짊어지게 되었고, 1627년에는 마침내 힌칭부르크(Hinchingbrook)의 영지를 팔아넘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크롬웰이 성년이 될 무렵 크롬웰 집안의 가산은 대체로 기울어지고 있는 형편이었다.[52]

크롬웰이 일리(Ely)에 거주하고 있던 처가계의 삼촌에게서 꽤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된 것은 그의 나이 40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1638년의 일이고, 이때까지 그는 세인트 아이브스(St. Ives)에서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산을 상속받은 뒤부터 그는 다시 일리로 이주하였으며, 이때부터 그의 가산은 어느 정도 알맹이 있는 것이 되었다. 혁명이 일어난 뒤 그는 "그의 자산이 보잘 것 없다" 고 친구에게 써 보낸 일이 있지만, 위급 시에 1000파운드의 기부를 할 수 있을 정도에 도달하고 있었다.[53]

---

50) 이동섭,「Oliver Cromwell의 淸敎思想硏究」,『한성사학』, 2집, (1984), p. 64.
51) Samuel Harden Church, *Oliver Cromwell*, pp .8-9.
52) 나종일,「Oliver Cromwell」, pp. 72-73.
53) 같은 논문, p. 7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크롬웰 집안과 그가 다닌 학교의 청교도적인 환경과 분위기는 크롬웰을 처음부터 청교도적인 성향으로 인도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종교적인 확신이 없었다. 그런 그가 칼빈주의 교리를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된 것은 1638년의 일이었는데, 그 해에 크롬웰이 사촌인 세인트 죤 부인(Mrs. St. John)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 내 주는 나를 당신의 아들로 받아 주셨으며 당신이 빛 되사 밝음 가운데 걷게 하셨다. 너는 내 인생의 태도를 알고 있다. 아! 나는 어둠을 사랑하며 그 안에 살았으며 빛을 싫어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것은 사실이다. 내가 신을 증오했으나 신은 내게 자비를 베푸셨다. 참으로 풍성하신 그의 자비함이여! 내가 그를 찬양하며 기도하리라. 선하신 역사를 하시는 당신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 일을 완성하심을・・・.[54]

크롬웰은 신앙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자각을 겪고 난 이후 언제나 종교적 문제를 그 밖의 모든 문제에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웠다. 혁명의 전시기에 걸쳐 중요한 쟁점으로 거론된 것은 정치문제와 종교문제였는데, 크롬웰은 언제나 후자가 전자에 앞선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정부란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에 비해볼 때 찌꺼기나 똥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에게 신앙의 자유가 교회제도나 국가제도에 있어서의 그 어떤 변혁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55]

1640년 11월 크롬웰은 다시 케임브리지 선거구에서 당선되어 1653년까지 지속되는 이른바 장기의회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본격적인 공직활동에 들어갔다.

---

54) 여 정,「올리버 크롬웰의 종교관과 영국혁명」,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 4.
55) 나종일, 「Oliver Cromwell」, p. 74.

제 2 절 *Oliver Cromwell*의 청교도 신앙

1. 섭리주의

선택 받은 자와 버림 받은 자를 신이 예정하고 있다는 예정설은 칼빈주의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이다.[56] 그렇다면 사람들은 신이 예정하고 있는 즉,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크롬웰은 신의 섭리(Providences)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어느 기도회에서 "나는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만한 그 어떤 것을 계시로 받은 적이 없다"[57]고 말하면서 계시를 통해 신의 뜻을 확신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부인하였다. 그는 계시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계시가 어떤 정치적 행동의 근거로 내세워질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기만일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대신 크롬웰은 신의 섭리를 믿었다.[58] 신의 섭리란 모든 역사적 사건은 신의 영원한 계획을 구현하는 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사람은 신의 보조자로서 그의 거룩한 뜻을 시간 속에서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이다.[59] 섭리주의를 확신한 그는 신이 일상생활의 극히 세밀한 부분까지 간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신이 그에게 맡긴 사업을 추진시켜 나갈 준비를 갖추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고 확신시켜 주는 신의 섭리를 항상 구했던 것이다.[60] 크롬웰은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나 유혈의 전쟁터에서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에 반드시 무릎을 꿇고 신의 가르침을 구했다. 그는 신의 의지를 알아내려면, 먼저 육체적·물질적 동기 욕망들을 배제한 뒤에 순수한 심정으로 신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신의 뜻에 복종하는 이상적인 행동방식에 관하여 먼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일소하고, 전적으로 신의 의지를 좇아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1]

---

56) C. H. Hill, *God's Englishman,* (London: 1970), p. 213.
57) Sir. C. Firth, *Oliver Cromwell and the Rule of the Puritans in England,* (London: 1900), p. 469.
58) 나종일,「Oliver Cromwell」, p. 77.
59) 여 정,「영국혁명」, p. 4.
60) 이동섭,「淸敎思想硏究」, pp. 67-68.
61) 같은 논문, p. 68.

크롬웰의 섭리주의는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1647년에 크롬웰은 그의 동료 장교들에게 “우리는 모두 신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행위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 안에 신의 뜻을 간직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충분히 숙고하기를 촉구했었다.[62] 그리고 1648년 캐리스브루크(Carisbrooke)에서 국왕을 감시하고 있었던 로버트 해먼드(Robert Hammond)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들의 육신의 논리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다…모든 일련의 섭리(providence)의 쇠사슬 속에서 신의 마음을 알아내도록 노력하라.”[63]

또한 크롬웰은 신형군(New Model Army)이 네스비(Naseby)전투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것은 신의 손길에 의한 것이었다고 의회에 보낸 한 보고서에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브리스톨(Bristol) 함락작전의 성공은 신이 그 도시를 버렸기 때문이며, 베이징 하우스(Basing house) 전투에서의 승리 또한 신이 그의 신성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정직함과 평화를 향한 끊임없는 가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크롬웰은 생각하였다.[64]

이처럼 크롬웰은 자신의 주장과 결단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때마다 신의 명백한 섭리와 존재를 확신했다. 1650년 9월, 던바(Dunbar)의 싸움이 끝난 후 크롬웰은 스코틀랜드인들이 그들의 패배가 신의 섭리의 뚜렷한 자국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난하였다.

> 우리는 최근에 신이 잉글랜드에서 이룩한 그 모든 놀라운 신의(神意)에 대하여 그대들의 눈이 멀지 않았기를 바랬다. 그런데 그대들은 엄숙하게 호소하고 또 기도하지 않았던가? 우리 역시 그러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그대들이나 우리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대하고 신기한 신의 나타남 속에 위대한 신의 손을 생각할 것이 아닌가?[65]

1653년 지명의회가 실패로 끝났을 때, 그는 신이 그에게 준 권력을 의회에 넘겨

---

62) Sir. C. Firth, *Oliver Cromwell and the Rule*, p. 469.
63) 나종일,「Oliver Cromwell」, p. 77.
64) 여 정,「영국혁명」, p. 5.
65) 나종일,『영국근대사연구』, (서울대출판부, 1981), p. 119.

준 것을 후회하였다. 그것은 최고 권력을 남들에게 이양하려고 애쓴 것이 성실한 입헌주의적 양심이었는지 혹은 비겁한 책임회피였는지에 대한 후회였다.[66] 그는 "신이 그의 섭리로서 아주 분명하게 내 손에 맡겨준 권력을, 신이 나에게 내놓으라고 명령하기도 전에, 즉, 우리의 싸움의 진실한 목적들이 이루어지고 자리 잡기도 전에, 내놓으려는 것은 죄악이 될만한 것이 아니었을까!" 라고 고민하였다.[67]

호국경이 된 후 그는 1654년 그 자신의 최초의 의회에서 그 스스로 호국경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 정부의 틀을 만든 사람들의 강권에 못이겨 자리를 맡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만일 내가 정부를 맡지 않았다가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정을 얻지 못하여, 유혈과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호국경이 된 것은 신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다.[68]

이와 같이 크롬웰은 전쟁뿐만 아니라 군주제의 폐지를 가져온 여러 사건들 속에 신의 섭리가 뚜렷이 나타난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구약성서에서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처럼, 새로이 선택받은 백성, 영국인들을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도록 자신을 지도자로 선택했다고 믿었다. 크롬웰에게 있어서 잉글랜드는 왕을 죽임으로서 이미 홍해를 건넜고, 현재 약속의 땅을 향해 사막을 헤매고 있는 중이었다. 크롬웰은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일어날 상황을 신의 섭리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자신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할 '섭리의 도구'로 이해하였던 것이다.[69]

그러나 사건을 통해서 신의 섭리를 분명하게 알아내는 일은 실제로는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될 수 있는 데까지 결단을 늦추어야만 했다. 사건의 추이를 좀더 관망하며 신의 뜻이 좀더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0] 한 예로 1647년 퍼트니(Putney) 논쟁에서 그는 이미 왕과 상원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는 편에 기울어져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신의 뜻임을 분명히 알 수 없는 것들을 원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

66) Sir. C. Firth, *Oliver Cromwell and the Rule*, p. 328.
67) 나종일,『영국근대사』, p. 120.
68) 같은 책, p. 120.
69) 김중락・김호연,「크롬웰의 이상사회 정책과 그 성격」, 『대구사학』, 76집, (2004), p. 369.
70) Sir. C. Firth,*Oliver Cromwell and the Rule*, p. 470.

> ‘이것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신의 뜻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런 것들을 우리의 원칙으로 삼지 말자…오히려 ‘설령 신이 그들을 분쇄할 의도를 가지고 있고, 나도 그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우리가 욕을 먹거나 죄를 범하거나 또는 신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그런 짓을 해야만 할 필요가 없게끔 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것을 원칙으로 삼도록 하자.[71]

그는 사태의 진전과 이에 대한 그의 숙고에 의하여 확신을 얻을 때까지는 그의 기존행동 코스의 변경을 주저하였다. 이제는 달리 딴 도리가 없다, 이 이상 양보하거나 주저할 수가 없다는 지경에 도달할 때 비로소 그는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행동을 취하였다. 요컨대, 결정을 내리고 난 후 그의 행동은 매우 과감하고 결단성 있는 것이었지만, 그러한 결단에 도달하기까지는 매우 신중하고 온건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72]

71) 나종일, 『영국근대사』, pp. 121-122.
72) 같은 책, pp. 121-122.

2. 종교적 관용주의

크롬웰은 퓨리턴의 여러 분파 중에서 독립파(Independents)[73]의 경향을 지니고 있다. 독립파의 종교 사상의 본질은 '종교적 자유와 관용의 정신'으로 '개체의 존중'이나 '개방된 정신'들과 관련되는 개념을 지닌 것들이다. 종교적 관용(religious toleration)사상은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태도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며, 국교회(established church)나 장로파(Presbyterians)와는 달리 뚜렷한 교리를 만들어 그것을 보편적으로 강제하거나 설파하지는 않았다.[74]

그러나 독립파의 종교적 관용은 제한된 관용이었다. 즉, 독립파는 청교도 신앙을 기초로 하는 여러 분파를 받아들였지만 진리를 벗어난 이단이나 진리 이외에 어떤 한 교리나 교회 체제를 강압적으로 주장하는 장로제는 수용하지 않았다.[75]

이러한 제한된 종교적 관용은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the Westminster Assembly: 1643-1649)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회의의 목적은 감독제(Episcopacy) 대신에 새로운 교회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의회는 같은 해 9월 엄숙한 동맹과 계약(The Solemn League and Covenant)에 의해 스코틀랜드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로 하여금 왕에게 대항할 수 있는 군대를 동원하게 하는 한편, 개혁 교회의 규례를 따라 교리와 예배의식, 훈련 및 교회 정치에 있어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및 아일랜드의 종교를 통일하려고 하였다.[76]

그러나 1644년 마스튼 무어(Marston Moor) 전투에서 의회가 승리한 이후에 의회파가 종교적 입장에 따라 분열하게 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장로파들은 1560년 스코틀랜드에서 이룩한 종교 개혁의 선례에 따라 영국의 감독제 교회를 폐지하고 대신 장로제도의 교회로 통일시키려고 하였다. 그 반면 독립파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였지만 장로파들의 교회 개혁 방안을 전제적이라고 반대하였고 장로교적 직제는

---

73) 독립파(Independents)란 퓨리턴의 급진분파 중 하나로 16세기 Brownister와 Borrowist들의 회중교회제도적 전통에 기원을 두고 있다. 장기의회 초기부터 자리 잡기 시작하여 영국혁명 기간에 급격히 확산, 부상하였다.

74) 김태현,「영국혁명에 있어서 신형군의 급진주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1643-1647)」,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 43.

75) 여 정,「영국혁명」, p. 8.

76) 임희완,『수평파운동』, p. 67.

찬성하되 개체교회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장로교회의 노회(Presbyter)나 대회(Synod) 그리고 총회(General Assembly)와 같은 기구를 부정했는데, 이것은 본래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관용의 태도의 결과였다.[77]

이와 같은 독립파의 종교적 관용 사상은 크롬웰에게도 나타난다. 종교에 대한 크롬웰의 입장은 "양심이 허락하는 한 모든 청교도가 평화를 추구하며 살 수 있어야 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빛과 이성의 억압 외에 그 어떤 억압도 받아서는 안되며, 스코틀랜드인, 영국인, 유대인, 장로교도, 독립파, 재세례파 중 그 어떤 부류에 속하든지 그 사람이 청교도인 한은 모두가 신의 백성으로서 바른 이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78] 다만, 가톨릭교도나 국교도, 그리고 분파주의자들과 같은 극단주의자들은 크롬웰의 종교적 관용의 대상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극단주의자들도 크롬웰의 종교적 관용에서 영원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었다. 비록 과거에 잘못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뉘우치면 언제든지 그의 종교적 범주 안에 수용될 수 있었다.[79]

크롬웰의 종교적 관용은 이미 1643년 동부연합에서 철기군을 이끌 당시부터 나타났다. 당시 크롬웰은 그의 기병대를 지휘하면서 재세례파를 비롯한 모든 분리주의자들의 예배를 허용하였고, 장로파의 자유로운 신앙 활동도 인정함으로써 "종교적 자유와 관용의 정신"을 실천하였다.[80]

---

77) 홍치모,『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영국혁명』, (총신대학교출판부, 1991), p. 178.
78) 오만규,『청교도 혁명과 종교자유』, (한국신학연구소, 2002), pp. 161-162.
79) 김중락・김호연,「그 성격」, pp. 366-367.
80) 김태현,「신형군의 급진주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1643-1647)」, p. 48.

3. 에라스투스주의

에라스투스주의(Erastianism)란 종교가 국가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사상으로 17세기 당시 의회 다수를 차지한 젠트리층의 일반적인 특성이었다. 청교도인 동시에 젠트리의 일원이었던 크롬웰에게서도 에라스투스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다.

에라스투스주의는 16세기 스위스의 의사이자 츠빙글리파 신학자인 토마스 에라스투스의 이름을 딴 것으로 전반적인 종교문제를 교회 대신 세속적인 국가가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모든 사람은 기독교적인 양심에 입각하여 교회에 복종해야 하며, 교회의 규율은 교회 법정과 종교 회의에서 시행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국가의 지상권 하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성직자들의 자의에 대항하여 의회가 마련한 기본적인 종교 시책 하에서 준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에서 에라스투스주의가 발생한 원인은 영국의 종교 개혁이 의회를 포함한 국왕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헨리 8세에 의해 영국 교회는 로마로부터 분리·독립되었기 때문에 영국은 제네바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처럼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나 교회의 국가 지배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와 교회의 밀접한 연계, 사실상으로는 국가의 교회 통제를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81]

영국 내 에라스투스적인 성격은 영국혁명기 새로 수립되어질 교회조직의 기본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욱 뚜렷해졌다. 1647년 4월 하원은 성찬에서 제외할 자들을 가려내는 권한이 원칙적으로 각 회중의 장로들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바로 다음 달에 다음과 같은 대체조건을 부가하였다.

> 만일 성찬에서 제외된 자가 회중의 장로들이 취한 절차에 대해서 불만을 찾게 되는 경우, 노회(Presbyter)로, 거기에서 대회(Synod)로, 거기에서 총회(General Assembly)로,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의회로 상소할 자유를 갖는다.[82]

이처럼 교회재판에 관한 최종적인 재판권을 의회에 두려는 조처에 대한 교회의

---

81) 나종일,「영국혁명에 있어서의 종교와 정치」,『역사학보』, 82집, (1979), p. 122.
82) 같은 논문, p. 124.

끈질긴 항의와 간청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를 냉담하게 거절한 것은 영국의 에라스투스적 성격 때문이었다.[83]

그러나 에라스투스주의는 교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주장하는 견해로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주목한 것이지, 교회조직 자체에 대한 특정한 종교적 견해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파이면서 동시에 장로파일 수는 없지만, 독립파이면서 동시에 에라스투스주의자이거나 장로파이면서 동시에 에라스투스주의자일 수 있었다.[84] 그리고 의원들이 제각기 다른 종교적 신조를 가지면서도 제한된 관용을 수반하는 장로제적 국가교회제도를 조직하는데 일단 성공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에라스투스주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85]

이와 같은 에라스투스적 성격은 크롬웰에게도 나타난다. 브리스톨(Bristol) 재탈환(1646.5.11) 후에 그가 쓴 편지에 의하면 국교회에 대한 최고 권위를 의회가 보유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 장로파, 독립파 모두 같은 신앙의 정신을 가졌다...신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기 위해 그 검을 의회에 주었다. 어느 누가 그것으로부터의 면제를 간청한다면 그는 복음을 모르는 것이다.[86]

즉, 크롬웰도 교회보다 국가가 우선한다는 에라스투스주의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성향이 장기 의회의 실패에도 불구하며 지명의회를 통한 의회정치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교도로서 그가 가진 섭리주의와 독립파로서 보여준 종교적 관용, 그리고 에라스투스주의와 같은 종교 사상은 그의 전 생애 뿐만 아니라 17세기 영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섭리주의를 통해 당시 17세기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모든 사건을 신의 섭리로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행동을 실행에

---

83) 같은 논문, p. 124.
84) 같은 논문, p. 126.
85) 같은 논문, p. 127.
86) 여 정,「영국혁명」, p. 14.

옮겼다. 또한 장로제에 집착한 장로파와 달리 비록 제한된 관용이었지만 독립파로서 종교적 관용을 추구하였으며, 에라스투스주의 사상을 토대로 의회정치를 추구하였다.[87]

87) 같은 논문, p. 15.

제 Ⅳ 장 *Cromwell*의 청교도 신앙과 영국혁명

제 *1* 절 의원 겸직 금지 조례

1642년 여름에 시작된 영국혁명은 1649년 찰스 1세가 처형될 때까지 무려 7년이나 계속되었다. 영국혁명이 발발한 직후, 왕당파와 의회파 모두 군대 모집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미 제Ⅱ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국은 대륙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상비군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당파의 경우, 30년 전쟁에 참전한 장교집단과 기병대가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회파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전투를 진행할 수 있었다.[88] 이와는 반대로 의회파의 경우, 혁명 초 의회군의 지휘계통이 지역적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이를 통합할만한 뚜렷한 세력이 등장하지 못한 상태였다.[89] 의회군은 대부분 지방의 민병대로서 고향을 떠나 싸우기 싫어하는 지방주의적 성향이 강했다. 이 때문에 의회는 의회파의 유력자들에게 별도의 사병을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오히려 명령계통의 불일치를 가져왔고 의회군의 무질서와 세력 약화라는 결과를 야기했다.[90]

1644년 7월,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있던 의회군이 마스튼 무어(Marston Moor) 전투에서 왕당파에게 극적으로 승리하였다. 이 전투에서 크롬웰은 동부연합군 소속으로 전투에 참여하였고, 철기군의 활약으로 정치적·군사적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9월 Lostwiethiel 전투에서 에섹스군이 패배함으로서 승리의 기세를 상실하였고 장로파 장교들에게서 서서히 찰스 1세와 타협하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욱이 1644년 제2차 뉴베리(Newbury) 전투의 패배는 에섹스경과 맨체스터경을 비롯한 장로파 장교들에 대한 크롬웰을 포함한 독립파 및 급진주의자들의 불만과 불신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91] 이에 크롬웰은 의원겸직금지조례(Self-Deniance Ordinance)를 제안하여 타협적이며 소극적인 전쟁수행 태도를 가진 장로파 장교들을 전쟁에서 배제하고자 하였다.

---

88) 김태현,「신형군의 급진주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1643-1647)」, p. 8.
89) 홍사중,『영국혁명사상사』, (전예원, 1982), p. 50.
90) 김태현,「신형군의 급진주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1643-1647)」, p. 8.
91) 같은 논문, pp. 13-14.

의원겸직금지조례란 의회군 가운데 군사적 직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의원들이 그의 직책을 물러난다는 원칙을 법령화한 것으로 세인트 존(St. John) 등의 독립파들과 몇몇 중간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1644년 12월 하원을 통과하였고 1645년 4월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다.[92]

그러나 의원겸직금지조례는 전쟁에 소극적이고 찰스 1세와 타협적인 태도를 보인 장로파 장교들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크롬웰 자신과 자신을 지지하는 종교적 급진주의자들을 배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크롬웰이 이런 출혈까지도 감내하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했던 것은 그 자신이 추구했던 사상을 실현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크롬웰이 추구했던 것은 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추밀원(Privy Council)의 창설과 독립파 회중의 관용을 허락했던 에라스투스적인 교회의 정착 및 자주 소집되는 의회였고 이를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였다. 크롬웰은 이러한 것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찰스 1세에게 절대적으로 승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93]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크롬웰에게 소극적이고 타협적인 장로파 장교들은 신의 뜻을 거스리는 집단으로 보였을 것이다.

의원겸직금지조례에 따라 에섹스경과 맨체스터경은 의원직에서 물러났고 의회 의원이 아닌 페어팩스가 총사령관(Command-in-chief)에 임명되었으며 참모장(Chief of Staff)에는 키폰(P. S. Kippon)이 임명되었다.[94] 앞서 언급한 것처럼 크롬웰 또한 의회 의원이면서 동시에 동부연합군의 부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의원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Saye측의 도움으로 군 직책이 일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네스비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는 신형군 부사령관으로서의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95]

요컨대 의원겸직금지조례는 표면적으로는 의원이 군 지휘권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여 군의 지휘권을 강화시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에섹스경과 맨체스터경과 같

---

92) 같은 논문, pp. 15-17.
93) 여 정,「영국혁명」, p. 17.
94) 김행복,「영국혁명에서의 신형군의 급진주의화과정」,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pp.36-37.
95) 여 정,「영국혁명」, p. 19.

은 장로파 장교를 배제함으로서 찰스 1세에 대한 절대적 승리를 얻기 위한 해결책이었다. 그리고 크롬웰은 이러한 절대적 승리를 바탕으로 국왕과의 협상에서 우월한 위치를 선점, 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추밀원(Privy Council)의 창설과 독립파 회중의 관용을 허락했던 에라스투스적인 교회의 정착 및 자주 소집되는 의회 등 자신의 종교적 사상을 성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군의 독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지휘권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표면적 의도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정적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순수성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크롬웰 자신도 의원이자 군 지휘관으로서 당연히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원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자신이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인식하였는지 그 진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프라이드의 숙청

1648년 12월 6일, 프라이드 대령의 지휘 아래 의회에서 장로파 의원들을 대거 축출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약 50여명의 나머지 의원들로 잔부의회가 구성되었다. 흔히 이를 프라이드의 숙청이라고 한다.

프라이드의 숙청이 일어나기 이전에 군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는데, 12월 1일 군대는 국왕을 허스트 캐슬(Hirst Castle)로 강제 압송하였고, 2일에는 런던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6일에 국왕의 재판에 반대하던 약 100여명의 장로파 의원들을 축출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프라이드의 숙청은 한마디로 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행위였다. 그런데 크롬웰은 이와 같은 군대의 행동을 지지하였다. 이것은 그의 에라스투스적인 성향과 이를 바탕으로 의회를 통해 신의 섭리를 이루고자 했던 기존의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이런 변화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96]

그 이유는 의회가 국왕과 계속적으로 타협을 모색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크롬웰은 의원겸직금지조례를 통해 의회군 내 국왕과 타협하고자 하면서 전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장로파 장교들을 축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크롬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회 내에는 국왕과의 타협을 모색하는 장로파 의원들이 있었다. 장로파 의원들 대다수로 이루어진 의회는 1648년 제2차 혁명이 종결된 이후에도, 국왕과 타협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의회의 노력은 찰스 1세에 의해 거부되었고 이러한 국왕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여전히 국왕과 협상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의회가 찰스 1세와 타협하고자 했던 이유는 감독제도 교회 대신에 장로제도 교회를 건설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로파 의원들은 찰스 1세의 처형에 반대하였다.[97]

이와 같은 의회의 행동은 크롬웰의 관점에서는 전쟁의 정치적·종교적 목적을 배반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즉, 크롬웰은 의회가 신의 뜻을 저버린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러므로 더 이상 현 의회는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이제 그 권

96) 같은 논문, p. 24.
97) 같은 논문, p. 24.

위는 군대에 의해 저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98] 그리고 계속적으로 국왕과 협상하고자 하는 장로파 의원들은 당시 개혁을 주장했던 독립파에게 있어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99]

요컨대, 크롬웰이 자신의 에라스투스적 성격과 섭리주의 사상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드의 숙청을 지지하였던 것은 당시 의회가 국왕을 처형하고 영국에 경건하고 성도에 의해 인도되어지는 국가 창설이라는 신의 뜻을 저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크롬웰의 청교도적 신앙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의회의 계속된 국왕과의 타협태도에 더 이상 현 의회를 통해서는 신의 뜻을 영국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100]

그러나 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프라이드의 숙청을 지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크롬웰 자신도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앞서 제1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크롬웰이 추구했던 것은 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추밀원의 창설과 독립파 회중의 관용을 허락했던 에라스투스적인 교회의 정착 및 자주 소집되는 의회였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신의 뜻이라고 여겼다.[101] 그러나 그의 에라스투스적인 가치관과 현실에서 나타난 정치적인 태도가 서로 충돌함으로써 그 자신의 행동이 일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중세로부터 계승되어 온 의회 권위에 대한 존중과 독립권을 사실상 마비시켜 의회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오히려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한 것처럼 비춰지게 되었던 것이다.

---

98) 같은 논문, p. 25.
99) 임호수,「성격에 관한 연구」, p. 62.
100) 여 정,「영국혁명」, p. 26.
101) 같은 논문, pp. 16-19.

제 *3* 절 *Charles* Ⅰ세 처형

1649년 1월 20일 군부총회는 통치헌장(the instrument of Government)을 기초하였으며, 특별 고등 법원은 “찰스는 폭군, 반역자, 살인자, 국민의 공적이므로 참수에 의한 사형에 처한다”는 판결문을 낭독하였다. 그리하여 국왕 찰스 1세는 1649년 1월 30일에 처형되었다.[102]

찰스 1세의 처형이 실제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한 것은 제 2차 혁명 종결 후에 군 장교들이 ‘군의 항의’(1648.11)를 발표하고 전쟁을 일으킨 책임자로서 찰스 1세의 처형을 주장하면서부터이다. 크롬웰이 이러한 군대의 주장에 처음부터 동조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찰스 1세의 사형 집행 영장에 서명하게 되었다. 크롬웰과 군 장교들은 분명 퍼트니 논쟁(Putney Debate)에서 수평파(Levellers)의 군주정 폐지에 반대하였다. 이들은 건의요목에서 관리 임명권, 최고 재판권, 군사권 등 의회의 권한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국왕, 상원, 하원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었다. 당시 크롬웰은 영국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정부 형태는 군주정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가능하다면 왕과 타협하려고 하였었다. 크롬웰이 1648년 1월에 이른 바 ‘국왕과의 교섭 중단’(No Address to the King)의 결의를 지지하기는 했지만 결코 국왕과의 교섭을 단념했던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크롬웰은 1648년 초에 군대의 비난을 무릅쓰고 ‘국왕과의 교섭 중단’을 어기면서까지 캐리스부르크(Carisbrooke)에 있는 왕과의 개인적 접촉을 시도하였다.[103]

그러나 찰스 1세는 의회를 이용하면서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4개안(the four bills)을 거절하고 1647년 12월 26일 스코틀랜드인들과 비밀 조약을 맺었다. 당시 스코틀랜드인들은 의회가 장로파 교회를 수립하겠다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라우던(Laudon), 라우더데일(Lauderdale) 그리고 라나크(Larnark), 이 세 명의 스코틀랜드 대표자들은 1647년 12월 26일, 와이트(Wight)섬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찰스 1세와 약정(Engagement)을 체결하였다. 찰스 1세는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의회법에 의해 엄숙한 동맹과 계약을 기꺼이 비

102) 같은 논문, p. 27.
103) 같은 논문, p. 27.

준하겠다고 하였다.[104] 그리고 이러한 조건 하에서 그는 향후 3년간 장로교를 영국 국교로 하며, 3년이 끝나는 때에는 교회 정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신학자들의 회의를 소집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반면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로부터 군대를 영국에 파병할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105] 이와 같이 찰스 1세는 자신의 왕위가 복귀되고, 국왕대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스코틀랜드식 장로제마저 영국의 국교회로 삼으려 하였던 것이다.[106]

그리고 결국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와 연합하여 1648년 4월경에 제 2차 혁명을 일으키자 크롬웰은 찰스 1세와의 교섭을 중단하였다. 크롬웰에게 있어 제 2차 혁명을 일으킨 찰스 1세의 행동은 신의 섭리에 어긋난 행동이었다. 이것은 그가 찰스의 재판과 그 처형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내세운 데서 잘 나타난다. "왕의 죄는 제 2차 내란을 일으킨 데 있다. 그것은 이미 1차 내란의 결과로 나타난 섭리에 어긋난 짓이요, 전쟁을 통하여 표시된 신의 심판을 거부하여 유혈의 참극을 다시 일으킨 것이다."[107]

결국 제 2차 혁명은 1648년 8월 사흘 동안(17-20) 계속된 프레스튼(Preston) 전투에서 스코틀랜드군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패배함으로서 크롬웰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리고 제 2차 혁명의 결과 장로제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108]

이와 같이 크롬웰은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인들과 약정을 체결하고, 나아가 제 2차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더 이상 찰스 1세에게 종교적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크롬웰은 찰스 1세의 처형을 결심하게 되었고, 1649년 1월 30일 처형되었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식 장로제는 영국에 수립될 수 없게 되었으며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정이 수립되었다.[109]

그러나 찰스 1세의 처형은 크롬웰의 종교적 관용주의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

---

104) 같은 논문, p. 28.
105) 한용희,「黨派的 分析」, p. 174.
106) 여 정,「영국혁명」, p. 28.
107) 나종일,『영국근대사』, p. 119.
108) 여 정,「영국혁명」, p. 29.
109) 같은 논문, p. 29.

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롬웰은 청교도 신앙을 기초로 하는 여러 분파를 받아들였지만 진리를 벗어난 이단이나 진리 이외에 어떠한 교리나 교회 체제를 강압적으로 주장하는 장로제는 수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원겸직금지조례와 프라이드의 숙청을 지지함으로써 장로파 장교와 의원들을 배제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그에게는 스코틀랜드와 비밀협약을 맺고 영국에 장로제 교회를 수립하고자 한 찰스 1세의 행동 또한 수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크롬웰의 종교적 관용주의는 성서에 나타난 관용주의[110]에 비해 다분히 폐쇄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10) 성서에서 말하는 종교적 관용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전2:4>는 구절이 바로 그러한 예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V 장 *Cromwell*의 청교도 신앙과 호국경 정치

제 *1* 절 잔부의회 해산과 지명의회

1648년 프라이드의 숙청 이후, 장기의회 나머지 의원들로 잔부의회가 구성되었다. 잔부의회에 대한 크롬웰의 생각은 어떠하였는가. 크롬웰은 프라이드의 숙청 이후 잔부의회가 자신과 정치적 이상이 동일한 사람들로 구성되기를 원했고, 더욱이 당시 공화국이라고 선포된 영국의 정치적 상황은 의회가 최고 권력기구라고 인식되어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크롬웰도 의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111]

잔부의회는 1650년 도덕개혁과 관련된 입법을 시작하여 동년 1월, '불경스러운 맹세와 저주방지법'을 통과시켜 도덕적 위반에 대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등 있는 벌금형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다섯 달 뒤에는 간통법을 통과시켜 사형까지 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춘부나 매춘소를 운영하는 이들은 초범자의 경우, 채찍질과 낙인의 처벌을 받고 감옥에 보내졌으며, 재범자는 사형에 처해졌다.[112]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파들로 인한 종교적 불일치, 사회개혁의 실패, 공화정 창설에 따른 제도적 변화의 미흡 등의 이유로 잔부의회는 공화주의자·수평파 등 급진주의자들의 심각한 비난에 직면해 있었다.[113]

크롬웰은 초기 공화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잔부의회가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계속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잔부의회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1653년 초에 이르러서는 크롬웰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 잔부의회가 공화정으로서의 개혁의지를 상실하고 권력만 즐기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크롬웰과 대다수 개혁세력들에게 있어 그러한 상황은 수용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114]

결국 크롬웰은 1653년 4월 20일 군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잔부의회를 강제 해

---

111) 김중락·김호연,「그 성격」, p. 371.

112) 같은 논문, p. 372.

113) 같은 논문, p. 372. 수평파는 잔부의회가 그들의 개혁 건의서를 무시하고 수평파로 믿어져 온 크롬웰의 사위 Ireton의 도움도 받지 못하자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수평파의 지도자인 J. Lilburne은 팜플렛을 통해 잔부의회를 "스스로 최고 권한시구라고 표결한 것"과 인민의 자유를 억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114) 같은 논문, p. 374.

산하였다.[115]

잔부의회를 강제로 해산한 뒤, 기존의 선출방식 대신 지명을 통해 의원들을 소집하였다. 1653년 7월 4일, 지명한 의원들로 구성된 지명의회(베어본의회)가 소집되었다. 의회 지명에 있어서 크롬웰이 가장 큰 신뢰를 보인 집단은 급진적인 천년왕국주의자들이었고, 이는 크롬웰의 개혁 동반자였던 제5왕국파[116]의 해리슨[117]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외에도 의회 의장을 맡은 장로교도 프란시스 로즈(Francis Rouz), 회중교회주의자 조지 멍크(George Monck)를 비롯한 침례교도, 제5왕국파 등 다양한 종파의 의원들로 구성되었다.[118]

그러나 지명의회 역시 실패로 끝나게 되었는데. 지명의회가 보인 지나치게 급진적인 성향과 군대에 대한 적대감이 그 원인이었다. 결국, 1653년 12월 12일 급진파 의원들을 제외한 온건파 의원들에 의해 의회 해산과 모든 권한을 크롬웰에게 이양한다는 결의가 채택되었다.[119]

크롬웰은 자신의 에라스투스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잔부의회와 지명의회를 소집하였으나 이미 프라이드의 숙청으로 의회의 권위가 무시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자신의 정치적 명분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그는 측근이었던 해리슨의 영향으로 지명의회 의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급진적인 청년왕국주의자들과 제5왕국파 의원들을 많이 등용하였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지명의회 의원의 선발 기준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115) C. Hill, *God's*, pp. 131-132

116) 영국의 공화정 시기에 유명해진 이들은 제5왕국이 곧 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5왕국파라고 불린다. 그들은 제5왕국이 (성서의 다니엘 7장, 요한계시록 13장 기록에 따라)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뒤를 계승하며, 이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그의 성도들과 지상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라고 믿었다. 1653년 지명의회(베어본의회)가 소집되자 그리스도교의 규범들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크롬웰이 호국경에 오르면서 희망이 깨어졌고 폭동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었다. 1661년 이후로 이 종파는 거의 사라졌다.

117) 해리슨(Thomas Harrison: 1616-1660)는 제5왕국파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믿었다. 크롬웰을 압박하여 잔부의회를 해산시켰고 지명의회를 소집하는데 앞장섰다. 그는 성인들에 의해 인도되는 정부의 설립을 희망하였다. 호국경체제는 신의 뜻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때문에 군대의 직책을 잃고 여러 번 투옥되었다. 왕정복고가 이루어진 후 처형당하였다.

118) 김중락・김호연,「그 성격」, p. 375.

119) 같은 논문, p. 378.

제 2 절 소장제도와 도덕정치

1653년 12월 16일, 램버트가 초안한 '통치헌장(the Instrument of Government)'에 따라 크롬웰이 호국경(Lord Protector)에 취임하였다. 크롬웰이 호국경에 취임한 이후, 첫 번째 의회가 소집되었으나 계속된 의회의 통치헌장에 대한 합법성 논란, 군대의 축소 요구, 의회의 권한 강화 등의 이유로 1655년 1월 22일 해산되었다. 그리고 동년 8월에 의회 대신 '소장(major-generals)제도'가 도입되었다. 소장제도의 도입으로 영국은 11개 지역으로 구분되어졌고, 각 지역은 소장들에 의해 통치되었다.[120]

그렇다면 크롬웰은 왜 소장제도를 도입하였는가? 직접적인 계기는 1653년 3월에 일어난 왕당파 세력의 반란 때문이었다. 이 반란은 즉시 진압되었으나 크롬웰 정권에 큰 위협과 부담감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지역 통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121]

한편, 가디너(Gardiner)는 17세기에는 주요한 두 가지 정치이념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선량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스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퓨리턴들은 "나라 안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다른 생각,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대체로 불순하고, 믿을 수 없고, 가지가지 욕심과 쾌락에 빠져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잡다한 사람들 사이에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이상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퓨리턴들은 엄격한 규율 없이는 조화와 평화를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주장하였다. 오직 신의 명령, 신의 성도들의 끊임없는 투쟁만이 지상에 최소한의 질서나마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기독교적 공화국은 강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 안에서는 조직적인 규율이 필요하며, 공포와 불안, 불신과 전쟁이 가득한 사회의 구원은 화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종을 통해서 추구되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122] 즉, 당시 정치적 위기 상황과

120) 같은 논문, pp. 379-383.
121) 같은 논문, pp. 384-385.
122) 나종일, 『영국근대사』, pp. 133-134.

크롬웰의 퓨리턴적 사상의 결과 소장제도라는 독특한 통치체제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소장들은 각 지역 사람들의 경건을 장려하고, 불경건을 억제하는 임무, 그리고 무능하고 부적절한 성직자를 추방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은 술 취함・불경건・욕설 등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였고, 경마・닭 싸움・곰 놀리기 등을 금지시켰으며, 게으르거나 방탕한 자들은 투옥하고, 가난하고 무능하지만 노력하는 자를 돕는 임무를 맡았다. 즉, 소장들이 영국 전역에서 치안과 사법, 그리고 풍속까지 통치하였던 것이다.[123]

그러나 소장제도를 통해 영국을 경건한 그리스도의 국가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크롬웰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소장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소장이 맡은 임무가 너무나도 광범위하다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소장들은 사법문제, 도덕적 풍속의 개혁 등 각 지역의 전반적인 행정부터 관습까지 책임지게 되었고 결국 어느 분야에서도 뚜렷한 개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124]

그리고 중앙정부로터의 미약한 지원도 소장제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요인이었다. 무능하고 부적절한 성직자를 추방하는 일에 있어서 추방위원들의 수를 충원해 달라는 소장들의 요구에 중앙정부는 매우 늦게 반응하였고, 심지어는 소장의 결정을 뒤집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또한 소장마다 생각하고 있는 십의 섭리라는 개념이 달랐으며 호국경의 생각을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소장제도를 통한 지나친 사회 통제와 문화개혁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극심하였다.[125]

소장제도의 가장 큰 실패 이유는 호국경 취임 이후 두 번째 의회 소집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의회 소집준비과정은 오히려 소장과 크롬웰에 대한 반감을 가져왔고 호국경 제도와 소장제도에 반감을 가진 의원들이 다수 선출되었다.[126] 결국 크롬웰은 1657년 3월, 약 2년간에 걸친 소장제도를 끝냈다.

---

123) 김중락・김호연,「그 성격」, p. 385.
124) 같은 논문, p. 386.
125) 같은 논문, pp. 386-387.
126) 같은 논문, p. 387.

크롬웰의 소장제도는 신앙을 전 영국에 걸쳐 적용시키고자 했던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의도는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믿음의 회심 없이 국가의 통제만으로 모든 국민이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나친 사회통제가 군대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크롬웰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독재자라는 인식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 Ⅵ 장 結言

이상에서 영국의 청교도운동의 기원과 발전에 대하여 검토하고, 올리버 크롬웰의 청교도 신앙과 그가 추진한 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영국의 청교도운동은 그 기원을 칼빈주의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메리(bloody Mary) 여왕 때, 대륙으로 피난갔던 개신교인들 중 상당수가 제네바에서 칼빈의 도움으로 교회를 세우고 칼빈의 신학적 영향을 받았으며, 그들이 메리 사후 귀국해 영국 교회의 정화 운동을 일으키는데 칼빈의 신학사상이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시기에 국교도와 청교도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청교도운동이 본격화되었고 'puritan(깨끗한 척 하려는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크롬웰의 청교도 신앙은 크게 섭리주의, 종교적 관용주의, 에라스투스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 섭리주의는 신이 일상생활을 포함한 역사에 간여하고 있으며 사람은 신의 보조자로서 그의 거룩한 뜻을 시간 속에서 이루어 간다는 것이다. 크롬웰은 평생 동안 정치적 위기나 전쟁터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먼저 신의 섭리를 구하였고 자신이 성도의 국가 건설이라는 신의 섭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선택받았다고 믿었다.

종교적 관용주의는 퓨리턴 신앙을 기초로 하는 여러 분파는 받아들이되 진리를 벗어난 이단이나 진리 이외의 어떤 한 교리나 교회 체제를 강압적으로 주장하는 장로제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된 종교적 관용주의는 크롬웰에게서도 엿보이는데, 그는 모든 퓨리턴이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되 가톨릭교도나 국교도 그리고 분파주의자들과 같은 극단주의자들은 그의 종교적 관용의 범주에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종교가 국가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에라스투스주의 성향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에라스투스주의 성향은 장기 의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던 데서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크롬웰은 17세기 영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신의 섭리로 이해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행동을 합리화 시켜 나갔다. 그리고 비록 제한된 관용주의였으나 모든 퓨리턴을 수용하고자 노

력하였으며 에라스투스주의 사상을 토대로 의회정치를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크롬웰의 청교도 신앙은 영국혁명과 호국경이 된 이후 자신이 추진한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645년 승인된 의원겸직금지조례는 Marston Moor 전투 이후 전쟁에 소극적인 반면 찰스 1세와 타협하고자 하는 장로파 장교들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실행되었다. 크롬웰에게 있어 당시 장로파 장교들의 모습은 경건한 그리스도의 국가 건설이라는 신의 섭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둘째, 1648년 12월 6일, 프라이드 대령의 지휘 아래 의회에서 장로파 의원들을 대거 축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를 프라이드의 숙청이라고 한다. 당시 의회 내에는 여전히 국왕과의 타협을 모색하는 장로파 의원들이 있었다. 이들은 장로체제를 확립하는 대신 국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왕과 협상하려고 노력하였다. 크롬웰에게 이와 같은 의회의 행동은 전쟁의 정치적·종교적 목적을 배반하는 행위로 비춰졌고, 더 이상 현 의회를 통해 신의 섭리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셋째, 크롬웰은 1649년 1월 30일 찰스 1세를 반역자 혐의로 처형하는데 동의하였다. 크롬웰이 처음부터 국왕의 처형에 찬성하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찰스 1세가 계속적으로 의회를 이용하면서 교섭을 거절하고 특히, 스코틀랜드와 비밀협약을 통해 2차 내란을 일으키자 국왕과의 교섭을 포기하였다. 크롬웰에게 있어서 2차 혁명은 1차 혁명의 결과로 이미 신의 섭리가 나타났는데도 신의 뜻을 거부하고 다시금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넷째, 프라이드의 숙청 이후 장기의회 나머지 의원들로 잔부의회를 구성하였다. 잔부의회는 1650년 도덕개혁과 관련된 입법을 시작하였으나 다양한 종파들로 인한 종교적 인한 종교적 불일치, 사회개혁의 실패, 공화정 창설에 따른 제도적 변화의 미흡 등을 이유로 공화주의자·수평파 등 급진주의자들에게 심각한 비난을 받았다.

크롬웰은 초기 공화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잔부의회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계속된 비난에도 불구하고 잔부의회를 지지하였으나 1653년 초에 이르러 개혁의지를 상실하고 권력만 즐기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크롬웰은 1653년 잔부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동년 7월 4일, 지명한 의원들로 구성된 지명의회(베어

본의회)를 소집하였다.

다섯째, 크롬웰은 1655년 8월 의회 대신 소장제도를 도입하였다. 소장제도는 도덕법의 준수라는 전통적인 퓨리턴의 특성의 한 형태로 나타난 제도였다. 그러나 크롬웰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맡은 임무가 광범위하다는 것과 중앙정부로부터의 미약한 지원, 그리고 소장마다 생각하고 있는 신의 섭리라는 개념이 달라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지나친 사회 통제와 문화개혁은 일반 대중의 극심한 반발을 가져왔으며 1657년 3월 막을 내렸다.

요컨대, 크롬웰은 신의 섭리를 이루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결과 그의 정책에 섭리주의, 종교적 관용주의, 에라스투스주의적 성향이 반영되었으며 퓨리턴으로서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을 그리스도의 경건한 국가로 건설하고자 하였던 크롬웰의 이상은 현실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점 때문에 그의 주장처럼 그가 성서에 입각한 신앙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순수성과 진정성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17세기 영국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의원겸직금지조례, 프라이드 숙청의 지지, 찰스 1세의 처형, 그리고 잔부의회 해산과 지명의회, 소장제도를 통한 도덕정치 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점은 신앙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외문헌

Bennett, Martyn, *English Civil War, 1640-1649,* (London: 1995).

Cornish, F. W., *Life of Oliver Cromwell,* (London: 1652).

Firth, C. S., *Oliver Cromwell and the rule of the Puritans in England,* (London, 1900).

Hill, Christopher, *God's Englishman,* (London: 1970).

Morrill, J. S., *Oliver Cromwell and the English Revolution,* (London: 1990).

Samuel Harden Church, *Oliver Cromwell - A History,* (London: 1898).

- 국내문헌

알렌 카튼,『청교도 정신:17세기 미국 청교도들의 신앙과 생활』,(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Houghton, Sidney Naurice,『기독교 교회사』, 정중은 역, (나침반사, 1998).

파커 제임스,『청교도 사상』, 박영호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김민제,『영국혁명의 꿈과 현실』, (역민사, 1998).

나종일,『영국근대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박영호,『청교도 실천신학』,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오만규,『청교도 혁명과 종교자유』, (한국신학연구소, 1999).

이승영,『17세기 영국의 수평파운동』, (민연, 2001).

임희완,『영국혁명의 수평파운동』, (민음사, 1988).

———,『淸敎徒革命의 宗敎的 急進思想』, (집문당, 1985).
홍치모,『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영국혁명』,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1).
홍치모・안주봉(共譯),『영국혁명 1640』, (새누리, 1998).
강형태,「17세기 청교도운동의 신앙생활에 관한 고찰」,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고길운,「영국 청교도운동의 기원과 발전」, 한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소영,「英國 市民革命期의 水平派에 關한 一考察」,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성남,「英國革命期에 있어서 水平派運動의 性格」,『사총』, 27집, (1983).
김익진,「청교도 운동과 청교도주의」,『교수논문집』, 2집, (그리스도신학대학교, 2003).
김중락,「1641년 잉글랜드 분열과 스코틀랜드」,『대구사학』, 55집, (1998).
김중락・김호연,「크롬웰의 이상사회 정책과 그 성격」,『대구사학』, 76집, (2004).
김태현,「영국혁명에 있어서 신형군의 급진주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1643-1647)」,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김행복,「16세기 후반-17세기 초 英國議會의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나종일,「지방 Gentry와 영국혁명」,『역사학보』, 40집, (1968).
_____,「Puritanism과 Oliver Cromwell」,『역사학보』, 67집, (1975).
_____ ,「영국혁명에 있어서의 종교와 정치」,『역사학보』, 82집, (1979).
_____,「영국혁명에 대한 한 시각」,『서양사론』, 33집, (1989).
마금영,「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영국의 왕조」,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송맹섭,「존 칼빈의 교회개혁에 관한 연구」, 칼빈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양승환,「영국 청교도 운동과 독일 경건주의 비교」,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여 정,「올리버 크롬웰의 종교관과 영국혁명」,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유천형,「淸敎徒 革命의 思想的 背景」,『교육논총』, 11집,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9).
원종천,「16세기 영국 청교도 언약사상 형성의 역사적 배경」,『神學과 宣敎』, 2권,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998).
———,「청교도 율법적 경건의 역사적 배경」,『역사신학 논총』, (2005).
이승영,「수평파와 종교」,『논문집』, 43집, (부산수산대학교, 1990).
이승재,「청교도 교회론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이동섭,「Oliver Cromwell의 청교사상 연구」,『한성사학』, 2집, (1984).
———,「英國의 宗敎改革史硏究」,『한성대학 논문집』, 7집, (1983).
———,「英國 宗敎改革의 源泉」,『한성대학 논문집』, 13집, (1989).
이병길,「淸敎徒革命의 政治理論」,『법정학보』, 1집, (1958).
이석남,「튜터조의 종교개혁 연구」,『학술논문집』, 16집, (호남대학교, 1995).
이웅희,「영국혁명의 종교적 배경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이은선,「칼빈과 청교도의 경제 윤리」,『한국개혁신학논문집』, 6집, (1999).
이종은,「영국혁명의 의의 및 크롬웰의 역할」,『정치사상연구』, 2집, (2000).
이환구,「J. Lilburne과 수평파운동」,『논문집』, 2집, (군산교육대학, 1968).
이희근,「청교도 예배에 관한 연구」, 칼빈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임원택,「청교도와 칼빈주의」,『진리논단』, 12권, (천안대학교, 2006).
임오수,「청교도혁명의 성격에 관한 연구」,『논문집』, 10집, (충남대학교, 1971).
임희완,「영국 수평당의 성립배경」,『학술지』, 33집, (건국대학교, 1989).
———,「영국혁명기의 종교적 급진사상의 역할」,『역사학보』, 138집, (1993).
———,「영국혁명의 캘빈주의의 수용과정」,『인문과학논총』, 31집,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조경래,「Puritan Revolution에 있어서의 독립파의 정권장악에 관한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英國의 市民革命을 前後한 主權論爭 小考」,『史學志』, 16집, (단군사학회, 1982).

조만제,「淸敎徒革命과 政治理論」,『경희대학교 논문집』, 9집, (1979).

———,「英國 淸敎徒革命期의 國王과 淸敎徒」,『경희대학교 논문집』, 16집, (1987).

천혜경,「Oliver Cromwell의 護國卿政治에 關한 一考察」, 상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최 선,「John Knox의 정치사상 연구」,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최진한,「Puritan 革命期에 있어서의 分派性」,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英國革命의 原因」,『진주교육대학 논문집』, 27집, (1983).

한용희,「淸敎徒革命의 黨派的 分析」,『논문집』, 2집, (숙명여자대학교 경제연구소, 1972).

홍정모,「英國革命과 宗敎的 急進主義」,『논문집』, 11집, (총신대학교, 1992).